

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· 생활(금융·소비)

AI에게 요약을 시키지 말고, 인용을 시키세요.

AI가 정리해 준 숫자 **690개**를 기사 원문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. **지어낸 숫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.** 제 걱정이 반쯤 틀렸던 것입니다.
대신 훨씬 잡기 어려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.

대조한 숫자

690개

경제 기사 30건 × 두 가지 질문 방식

지어낸 숫자

0개

두 방식 모두 0. 요즘 AI는 정확하다

단위가 틀린 답

100배

원문에 있는 숫자라 검사를 통과

숫자가 맞다고 해서, 그 숫자의 뜻까지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.
그 차이는 **근거 문장을 받아야** 보입니다.

방법 — 지침 한 장과 되묻는 문장 세 개

설치할 것도, 돈 드는 것도 없습니다.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.

1. 대화 맨 앞에 붙여넣는 지침

당신은 내가 준 문서만 보고 답합니다.

- 숫자·날짜·기관명은 **문서에 있는 것만** 씁니다.
문서에 없으면 "문서에 없음"이라고 씁니다.
- 숫자를 쓸 때마다, 그 근거가 된 문장을 문서에서
그대로 따옴표로 인용해 옆에 붙입니다.
- 문서끼리 내용이 다르면 둘 다 적고, 각각
어느 기관이 언제 발표한 것인지 표시합니다.

추측해서 채우지 마세요. **모르면 모른다고 쓰는 것이 정답**입니다.

2. 받은 답을 검사하는 세 문장

1 “이 숫자가 원문 어디에 있는지, 그 문장을 그대로 인용해 주세요.”

단위·맥락이 틀린 숫자를 걸러냅니다. 이 문장 하나가 핵심입니다.

2 “원문에 없으면 없다고 말해 주세요. 비슷한 숫자로 대신하지 마세요.”

빈칸을 그럴듯한 값으로 메우는 것을 막습니다.

3 “이 내용을 발표한 기관과 발표일을 알려 주세요.”

출처 없는 일반론과, 엉뚱한 사람 말로 붙이는 것을 걸러냅니다.

3. 기록은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

[확인] 기준금리 3.00% — 한국은행 2026-08-28 발표문

[미확인] 연말 환율 전망 1,600원 — 어느 기관인지 확인 못 함

확인 못 한 줄은 **지우지 않고 남깁니다**. 나중에 근거를 찾으면 그때 옮기면 됩니다. 3개월간 숫자 15,976개 중 **13개**가 이 자리에 남았는데, 이 13개가 0이었다면 검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**검사가 작동하지 않는다**는 뜻입니다.

측정 — 효과를 직접 재봤습니다

경제 기사 30건에 같은 질문을 두 방식으로 던지고, 나온 숫자를 전부 원문과 대조했습니다.

질문 방식	내놓은 숫자	원문에 없는 숫자
A. 그냥 물어보기	255개	0개
B. 지침 + 인용 요구	435개	0개

처음 4개가 걸려 나왔지만 열어보니 전부 **형식 변환**이었습니다 — `three quarters of a percent` → `0.75%`, `22-Dec-27` → `2027.12.22` 같은 것이었지, 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.

그런데 같은 실험에서, 훨씬 위험한 걸 찾았습니다

원문은 **US\$30.72 billion** — 우리 돈 셈으로 **307.2억 달러**입니다.

A. 그냥 물어보기

30.72억 달러

100배가 틀렸습니다. 그런데 30.72 라는 숫자 자체는 원문에 있어서 **기계 검사**를 그대로 통과했습니다. 숫자만 대조해서는 못 잡습니다.

B. 인용을 요구했을 때

307.2억 달러

“Offshore investors sold a net **US\$30.72 billion** worth of local stocks and bonds last month”

숫자 옆에 원문 문장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. **3초면 확인**됩니다.

AI의 위험은 “없는 숫자를 만드는 것”에서 “있는 숫자를 잘못 붙이는 것”으로 옮겨갔습니다.

단위를 잘못 붙이고, 말한 사람을 잘못 붙이고, 시점을 잘못 붙입니다. 그리고 이걸 숫자만 박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— 그 숫자가 나온 **문장**을 받아야 보입니다. 그래서 세 문장 중 ①번입니다. 인용은 숫자를 **문장째** 가져오기 때문에 단위와 발화자와 시점이 함께 따라옵니다.

그리고 제 검사기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

처음 계산은 “**그냥 물으면 33.3%가 틀렸고, 인용을 요구하면 6.3%로 줄었다**”였습니다. 제 주장에 딱 들어맞는 숫자였습니다. 너무 잘 맞아서 원자료를 열어봤더니, 그 33.3%의 대부분이 위의 낱말 형식 변환이었습니다. 검사기를 고쳐 다시 계산하니 **0% 대 0%**가 나왔고, 제가 쓰려던 근사한 숫자는 사라졌습니다.

내 주장에 유리한 숫자가 나왔을 때가, 가장 의심해야 할 순간입니다. 제 검사기 역시 숫자만 보고 있었지, 그 숫자가 어떤 문장에서 나왔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.

따라 하기 — 필요한 곳은 뉴스가 아니라 일상 문서입니다

틀리면 내가 손해를 보는 문서라면 전부 해당합니다.

보험 약관

보장 범위를 물으면 매끄럽게 정리해 줍니다. 그런데 **면책 조항 하나를 빠뜨리면**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가 못 받습니다. ①번으로 **조항 번호와 문장**을 받으면 인용 못 하는 대목이 드러납니다.

건강검진 결과지

기준치를 말해줄 때 ③번으로 “**어느 기관 기준인가요**”를 물으면 “**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**”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하는데, 그건 **근거가 없다**는 뜻입니다.

정부 지원금 안내

금액과 마감일은 조금만 틀려도 **신청 자체를 놓칩니다**. ②·③번으로 공고 원문과 공고일을 확인하게 합니다.

셋 다 AI를 쓰지 않는 게 답이 아닙니다. AI에게 요약을 시키되, 근거 문장을 함께 받는 것이 답입니다.

지금, 이 자료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— 3분

1. 이 자료의 내용을 AI에게 붙여넣습니다.
2. “**핵심 수치를 다섯 개만 정리해 주세요**”라고 물어봅니다.
3. 답이 나오면 ①번을 그대로 되물습니다.

특히 단위를 눈여겨보세요. 여기에는 690개, 255개, 15,976개, 307.2억 달러 처럼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섞여 있습니다. 인용을 받아보면 어느 숫자가 무엇을 센 것인지 바로 드러납니다.

이 세 문장이 붙었으면 하는 곳

공공기관 AI 상담 화면 아래 — 답변 밑에 “**근거 조항을 보여달라고 물어보세요**”한 줄이면 됩니다.

어르신 디지털 교육 과정 — AI 쓰는 법과 AI에게 되묻는 법을 같이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. 가르칠 내용이 세 문장뿐입니다.

학교 AI 수업 — “조심해서 쓰자”는 당부보다 **되묻는 문장 세 개**가 실제로 손에 납니다.

셋 다 새 예산이나 새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안내 문구 한 줄이면 됩니다.

이 방법의 값어치는 “AI가 자주 틀린다”에 있지 않습니다. 실제로 재보니 자주 틀리지도 않았습니다.

값어치는 **틀렸는지 아닌지를 3분 만에 알 수 있다**는 데 있습니다. 그러려면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— **AI에게 요약을 시키지 말고, 인용을 시키세요.**